



# 디지털 시대, 책 읽지 않는 사람의 미래가 위험하다 ”

- 디지털 시대, 책 읽기에 대한 재조명
- 책 읽기란 무엇일까?
- 무엇 때문에 책 읽기를 하는가?
- 디지털 시대의 독서가 왜 중요한가?
- 디지털 시대, 책 읽지 않는 사람의 미래가 위험하다

2011. 08. 09. 제2호

## 디지털 시대, 책 읽기에 대한 재조명

요즘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보면, 책을 읽는 사람들보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불과 2-3년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출퇴근 시간에 책과 신문을 대신해 자투리 시간 활용의 대명사가 될 만큼 사용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TV를 보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책을 읽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어 든다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어느새 TV시청은 스마트폰의 대세에 밀려, 책을 읽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되지 못하기 시작했다.



미국 MIT 미디어랩의 초대 소장 니컬러스 네그로폰테 교수가 “종이책은 죽었다. 5년 내에 종이책은 거의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머지않아 종이책의 자리를 전자책이 대신할 지 모른다. 어쩌면 전자책이 아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지식의 보고였던 책의 자리를 대신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 지식의 축적과 그 지식을 통해 보나온 세상을 창조해 나가던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기대할 만 한가?

책은 그 존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식과 경험의 확대 뿐만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한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독서를 통해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 대신에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콘텐츠들에 생각과 행동이 빠져드는 사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예기치 못할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디지털 시대의 미래에 대해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책 읽기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가치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독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분명 우리의 미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 책 없는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기대할 만 한가? ”

## 책 읽기란 무엇일까?

인류의 발전은 읽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읽기의 유래는 기원전 5만년 전, 동굴벽화를 그린 것을 기점으로 출발한다. 기원 전 약 4000년경에 인간은 글쓰기와 읽기를 배웠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기원전 약 3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알파벳을 쓰고 읽은 것은 기원전 1000년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읽기’라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나무나 암석으로 된 비문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다는 것인가? 결국 ‘읽기’란 일정한 법칙에 따라 표기된 기호들을 해독하는 일인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읽기”를 기호 해독, 의미, 커뮤니케이션 등 3가지 측면의 견해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호해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엘코닌(D.B. Elkonin)은 “읽기”를 “말의 소리 형태를 문자 기호 형식에 따라 개조해 놓은 것” 이라고 정의 했다. 그리고 프리에스(C.C Fries)는 “청각적 기호로부터 시각적 기호로의 전이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하고 베네츠키(R.L venezky)는 “서사 기호를 독자가 의미를 끌어 낼 수 있는 언어 형태로 바꾸어 놓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것은 5 만년 전 동물의 벽화의 기호들의 의미를 해석 하고, 중국 은-주 시대의 거북이 등딱지의 결, 갑골문자를 해독해 내는 것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의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카터(H.L.J carter)와 맥기스(D.J.McGnnis)는 “읽기”를 “인쇄화 된 기호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토킨커(M.A Tinker)와 맥쿨로우(C.M.McCullough)는 “독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개념들의 조작을 통한 의미 구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깁슨(E.J. Gibson)과 레빈(H.Levin)은 “텍스트에서 의미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읽히는 내용들이 각기 어떤 목적 하에 만들어진 상징체계로 볼 수 있는데, 저자는 어떤 상징을 알아보고 거기에 의미를 채워 넣은 것이다. 예를 들어, 오르간 연주자가 악보를 읽는 다던지, 우리가 교통 표시판을 읽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형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우스트(H. Aust)는 “읽기”를 “작가와 독

자간의 상호 관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형태”라고 정의 하였으며, 맬로우(Mallow)는 “읽고 쓰는 능력을 함축시키는 기술과 저자가 저술한 내용을 독자가 인간 본연의 자세에서 되풀이 하는 과정으로 본다”고 정의 하였다. 또한 가네(Gagne)는 ‘책 읽기가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발휘하고 삶을 가장 깊이 있게 음미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정의하였다. 독서를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책 읽기란 “문자로 나타난 저자의 사상과 감정의 표상을 읽을 자료, 독자의 지식, 독서력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독자의 마음 속에 깊이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독자가 책 속의 저자와 만나서 의사소통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즉, 책 읽기 한다는 것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장이나 글을 이해하면서 읽어 가는 것이다. 책 읽기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지적 작용’인 것이다.

“책 읽기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지적 작용’인 것이다.”

## 무엇 때문에 책 읽기를 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책 읽기를 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독서의 본연적 기능과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심리학적 접근으로 독서의 가치를 지능적 가치, 심리적 가치, 경험적 가치, 환경적 가치 등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능적 가치 - 독서는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게 해주며 사고력을 신장 시킨다.**

독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지식 습득의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 정보 획득의 수단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실용적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독서를 통하여 조용하고 내면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면서 생각하게 하게 해준다.

또한 독서 능력은 지능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능의 발달이 독서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능의 발달이 빠르면 독서 능력의 발달도 빠르고 지능의 발달이 저조하면 독서 능력의 발달도 저조하다. 그렇지만 지능이 평균 이상이기만 하면 독서 능력은 얼마든지 정상화 될 수 있다.

**둘째, 심리적 가치- 정서를 함양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하며, 치료적 가치를 지닌다.**

문학작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희로애락의 정서보다 훨씬 응축된 감동을 불러 일으켜 준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고 정서를 함양하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한다. 독서는 책 속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독자 자신을 동일 시 하고 자신의 억압된 감정이나 부정적인 기억을 소산시키는 작용을 통해 개인적 통찰을 이루도록 하는데 치료적인 가치를 지닌다.

**셋째, 경험적 가치- 경험을 확대시키고 깨달음의 즐거움을 준다.**

독서는 개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로 안내해 주며 공간과 시간을 무한정 확대하여 대리 경험을 시켜준다. 그리고 사회의 가치 규범과 문화를 통해 독자는 폭넓고 깊이 있는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다. 또한 책을 통해, 깨달음의 즐거움을 경험 할 수 있다.

**넷째, 환경적 가치 -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

독서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장려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독서 환경에 자주 노출 된 사람일수록 독서가 습관화될 수 있다.

## 디지털 시대의 독서가 왜 중요한가?

지금은 역사상으로 어느 때보다도 정보 기술이 빠르게 변천하는 시대이다. 예전에는 - 중국인들이 인쇄기를 발명하고 수백 년이 지나서야 - 요한네스 구텐베르크가 유럽식 인쇄기로 성경을 찍어 냈고, 사람들에게는 그 책을 사 읽을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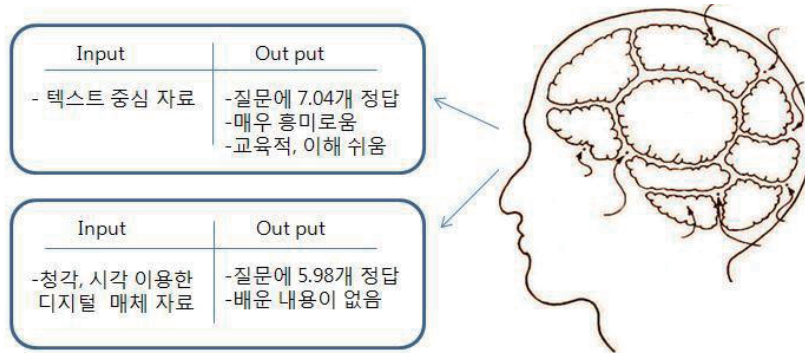
다. 디지털 기술을 수십 억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십 년에 지나지 않았다.

전례 없는 디지털 정보가 넘쳐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늘어 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터넷, 정보기술, 스마트 기기의 발달은 우리의 정보와 지식 습득하는 방식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제 책 한 권을 다 읽고 밑줄을 그으며 지식을 얻기 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의 깊이 보다는 효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터프츠대학교의 발달 심리학자인 매리언 울프교수에 의하면, 읽기의 신경과학에 대해 쓴 『책 읽는 뇌』에서, “독서는 신경생리학적 변화를 바꾸면서, 독자들의 지적 능력을 바꿔 놓아서, 지적 능력이 평범한 독자들도 더 빨리 읽고, 점차 더 어려운 글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책 읽기를 통해 뇌의 인지적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독서는 독자들의 지적 능력을 바꿔 놓아서, 지적 능력이 평범한 독자들도 더 빨리 읽고, 점차 더 어려운 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왔을 때, 가족의 휴대폰 번호가 생각 나지 않거나, 집 전화 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한참 동안 고심한 기억이 없는가?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우리가 어느새 누구나 한번쯤 겪어 보았을 법한 일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디지털 매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지로 생기는 후유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뇌는 우리가 개발하면 할수록 발전하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에 너무 의지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뇌는 부분적 퇴화가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매체와 접목이 디지털 시대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력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자료: 미디어 사이콜로지(2007)

이것은 실험에 의해서도 입증됐다. 2007년 학술지 『미디어 사이콜로지』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100명 넘는 자발적 피 실험자를 구해 말리에 대한 발표내용을 컴퓨터상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보도록 했다. 피실험자 중 일부는 글로만 채워진 일련의 페이지만 구성된 발표문을 읽었고, 다른 그룹은 글자는 물론 관련 페이지와 함께 과도한 청각 시각적 프레젠테이션 창까지 포함된 것을 읽었다. 실험이 끝난 후 피실험자들은 자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게 했다.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글자로 이루어진 자료를 본 이들은 평균 7.04개를 적었고 매우 흥미롭고 교육적이라고 이해하기 쉽다고 했으며, 반면, 멀티미디어를 본 이들은 5.98개에만 정답을 적었고, 이 내용을 보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했다.

위 실험의 결과는, 책을 대신한 과도한 디지털 영상매체 환경은 상상력과 지적 활동을 저하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IT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는 인터넷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훑어 보고, 건너 뛰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신경 회로는 강해지는 반면, 깊고 지속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읽고 생각하는 신경회로는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뇌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로 인해,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은 강화 되고 있지만, 독서를 통해 “텍스트-인지-뉴런(뇌)-유전자와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인지와 논리, 기억과 감성을 이끌어 내며 지속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퇴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책을 읽지 않는 뇌, 당신의 일상이 반복된다면, 당신의 미래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라는 점에서 디지털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훑어 보고, 건너 뛰어, 읽고 생각하는 신경회로는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 디지털 시대, 책 읽지 않는 사람의 미래가 위험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우리의 읽기 방식은 책을 통한 고도의 집중과 깊고 지속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퇴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접목은 배제 할 수 없는 요소이다. 『책의 우주』에서 움베르트 에코가 묻고 답한다. “인터넷으로 인해, 과연 책이 사라지게 될까요?” 결론은 “아니다” 이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합리적 활용을 통한 독서의 가치 극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종이 책의 종말에 대한 전망보다는 융·복합 시대를 살아 남기 위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수단으로써 책에 대한 유용성이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표명한 것일 수도 있다.

디지털 시대의 책 읽기는 “종이 책이냐 디지털 북이냐” 책의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뇌가 디지털 기술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깊고 지속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퇴화되지 않기 위한 필연적 행위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독서경영연구소 고완숙 선임연구원

---

### [참고 문헌]

- 이만수 『독서교육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 매리언 울프 『책 읽는 뇌』. 서울: 살림, 2009.
-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서울: 청림출판사, 2011.
- 한스 요아힘 그립 『읽기와 지식의 감추어진 역사』. 서울: 이른 아침, 2006.
- 싸이월드 비즈북 집필진 『직장인을 위한 전략적 책읽기』. 서울:호이테크스, 2006
- 최소연, 이상복 “아침 10분 독서가 독서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독서문화연구』 · (2009)
- 기술과 상상력의 사이 책의 미래
-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story/201105/wk20110524212456105450.htm>